

현대자동차

Hyundai Motor Company · 005380 · 유가증권시장

2분기 영업이익 -20.8%와 3분기 파업 차질 약 5.5만 대가 부담이고 Forward PER 6.5배
도 동종 중앙값 5.7배보다 높습니다

종합 판정

HOLD

긍정 의견 3 · 부정 의견 3 · 보류 2

발급 시점 가격

28.8만원

2026.10.26 종가 · -2.5%

외부 목표가

0건

목표가를 낸 기관 없음

52주 최저 · 최고

24.9만원 ~ 78.3만원

고점 대비 -63.2%

다음 실적 발표

10월 29일

26년 3분기 실적

01 핵심 데이터 4가지

3분기 파업 생산 차질 약 5.5만 대

NH투자증권 추정 · 3분기 수출량 전년 -16.1% · 신한투자 추정 도매판매
약 92만 대(-11.5%)

10월 증권사 목표가 줄하향

10/12 6곳 하향(KB증권 90만→70만 원 등) · 10월 목표가를 낸 13곳 모두
하향 · 3개월간 상향 0곳

2분기 영업이익 2조 8,509억 원, 전년 -20.8%

매출 49.2조 원(+1.9%) · 영업이익률 5.8%(1년 전 7.5%) · 순이익 2조
5,209억 원(-15.9%)

영업이익 두 분기 연속 증가

4분기 1조 6,954억 원 → 1분기 2조 5,147억 원 → 2분기 2조 8,509억 원
· 직전 분기 대비 +13.4%

02 리서치 팀 토론 — 쟁점 6개 판정

성장 ×2

부정 의
견

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-20.8%이며 3분기도 NH투자증권 -5.3%, 신한투자 -6.4%로 전년 아래라는 전망입니
다. 반등은 4분기 이후의 기대이고 3분기에는 확인된 숫자가 없어요.

수익성 ×2

긍정 의
견

5.5%→5.8%→3분기 추정 5.7%로 최근 세 분기가 모두 5%대 중반입니다. 원재료 6,000억 원과 환율 3,000억 원 부
담이 있는데도 추정 이익률이 유지돼 4분기 3.6%로 되돌아갈 구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.

현금·재무

보류

연결 재무에 할부·리스 금융 자회사가 포함돼 제조 부문만의 차입은 따로 볼 수 없습니다. 영업현금흐름이 두 분기 플러
스로 돌아갔지만 2분기 잉여현금은 -5,484억 원이라 판정을 보류합니다. 11월 중순 3분기 보고서에서 영업현금 1조
5,367억 원 이상 유지와 잉여현금 플러스 전환을 보고 다시 판단합니다.

밸류에이션

부정 의
견

TTM 9.3배·Forward 6.5배 모두 동종 중앙값 7.9배·5.7배를 웃돌고 이익 추정은 내려가는 중입니다. P/S가 같고 절대
배수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업종 안에서 할인이 없어요.

종목 고유 이슈

긍정 의
견

생산재개(9/2)는 공시로 나온 사실입니다. 수출 -16.1%는 이미 지난 3분기의 숫자이고, 환율 약 3,000억 원과 원재료
6,000억 원 부담은 이미 금액이 나온 항목이라 충격 범위가 3분기 안에 한정됩니다.

주가 흐름

보류

두 쪽 숫자가 맞서 3분기 실적(야후 일정 10/29) 전에는 가르기 어렵습니다. 종가가 5일선 300,900원을 넘으면 단기
반등, 불린저 하단 282,371원을 내주면 52주 저점 249,000원이 시험대가 됩니다.

종합 판정은 HOLD입니다. 2분기 영업이익률 5.8%와 생산재개(9/2)는 긍정 의견 근거, 영업이익 -20.8%와 동종보다 높은 배수는 부정 의견 근거로 3
대 3이며, 10/29 3분기 실적(야후 일정)과 11월 중순 보고서에서 다시 봅니다.

03 판정이 바뀌는 조건

▲ 판정이 좋아지는 조건

10/29 3분기 실적(야후 일정)

매출 46.1조 원·EPS 7,151원 컨센서스 이상이면 파업 충격이 3분기 안에 끝났
다는 신호

종가 5일선 300,900원 회복

5일선까지 4.5% 상승 필요 · 넘어서면 단기 하락 추세가 멈춘다는 신호

영업현금흐름 플러스 유지

2분기 1조 5,367억 원 이상이면 총차입 190.4조 원 부담이 완화

▼ 판정이 나빠지는 조건

3분기 실적 컨센서스 미달

매출이 46.1조 원에 못 미치거나 영업이익이 신한투자 추정 2조 3,700억 원보
다 낮으면 하향 신호

종가 불린저 하단 282,371원 이탈

현재 2.0% 위 · 이탈하면 52주 저점 249,000원이 시험대

달러/원 1,300원대 초반 지속

현재 1,321.8원 · 환율이 더 낮아지면 4분기 이익 회복이 제약

출처: DART 분기 매출·영업이익을 야후 파이낸스 분기 재무제표에 반영 · DART 임원 · 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· DART 최근 60일 공시 제목: 생산재개 9/2 · 특수관계인으
로부터 기타유가증권 매수 9/14·10/16·10/23 · 기업설명회 개최 안내 9/3·9/18·10/22 · 국내 보도·야후 파이낸스 · 메트로신문 2026.10.13·파이낸셜뉴스 2026.10.6 · 야후 파이낸스 · 야
후 파이낸스 동종 4곳 · 야후 파이낸스 실적 추정
리포트 원문: lightview.kr/report_hyundai · 이 요약은 원문에서 핵심만 옮긴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.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04 분기 실적 단위 조 원

	25년 2분기	3분기	4분기	26년 1분기	2분기
매출	48.3	46.7	46.8	45.9	49.2
영업이익	3.6	2.5	1.7	2.5	2.9
순이익	3	2.3	1	2.3	2.5
영업이익률	7.5%	5.4%	3.6%	5.5%	5.8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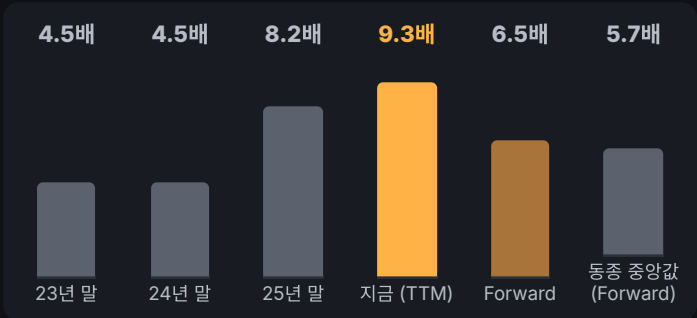
영업이익률
5.8%
1년 전 7.5%

순이익률
5.1%
1년 전 6.2%

매출총이익률 (야후 기준)
17.8%
1년 전 18.9%

잉여현금 (분기)
-5,484억 원
1년 전 -3조 3,795억 원

05 PER 변화



06 동종 비교(외부 목표가 0전)

기업	P/S	시가총액
현대자동차 005380	0.3배	약 58.3조 원
기아 000270	0.3배	약 40.8조 원
현대모비스 012330	0.5배	약 29.1조 원
제너럴모터스 GM	0.4배	약 669.6억 달러
포드 F	0.2배	약 464.1억 달러

07 재무 체력

현금·단기투자 (6/30) 87.9조 원 77.7조 원 → +13.1%	총차입 (6/30) 190.4조 원 155.3조 원 → +22.6%	자기자본 (6/30) 122.3조 원 110.3조 원 → +10.9%
---	---	--

08 최근 뉴스

- 10/2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타유가증권 매수 공시
공시 제목 기준 · 9/14·10/16에 이어 60일 안 세 번째 · 공시일 증가 -1.99%
- 10/22 기업설명회(IR) 개최 안내 공시
9/3·9/18에 이어 60일 안 IR 안내 공시 · 공시일 증가 -2.58%
- 10/13 외국인 지분율 23.90%, 올해 순매도 11조 3,925억 원
올해 1월 35% 웃돌다 8월부터 24%대 · 10/13 보도 · 당일 증가 -1.56%

09 다가오는 일정

- 10월 28일 · 미 연준 금리 결정
미 10년물 4.99% 수준에서 금리 경로가 차량 금융 비용과 투자 심리에 영향
- 10월 29일 · 26년 3분기 실적 발표(야후 일정 기준)
야후 컨센서스 매출 46.1조 원·EPS 7,151원 · 회사 공시로 재확인
- 11월 중순 · 3분기 보고서 제출 예상
영업현금흐름이 2분기 1조 5,367억 원 플러스를 이었는지 확인

10 주요 리스크

- 파업·생산 차질 재발(3분기 약 5.5만 대)
영향 중 · 가능성 상 · 확인 10/29 실적에서 생산 정상화로 4분기 도매 판매가 회복되는지
- 환율 악세(1,321.8원)와 원재료비
영향 상 · 가능성 상 · 확인 3분기 평균 환율 1,418원 대비 낮은 수준이 이어지는지, 원재료 6,000억 원 부담이 줄어드는지
- 차입금 증가(총차입 190.4조 원, +22.6%)
영향 중 · 가능성 중 · 확인 영업현금흐름 플러스가 이어지고 잉여현금이 -5,484억 원에서 개선되는지

11 체크포인트

- ★★★ 3분기 실적(야후 일정 10/29)
매출 46.1조 원·EPS 7,151원 컨센서스와 영업이익률 5%대 중반 유지 여부
- ★★★ 증가 5일선 300,900원 회복
5일선까지 4.5% 상승 필요 · 회복하면 단기 하락 추세가 멈추고 못하면 불린저 하단 282,371원이 방어선
- ★★★ 11월 중순 3분기 보고서
영업현금흐름 1조 5,367억 원 플러스 유지와 총차입 190.4조 원 변화